

---

2022 국토 교육 동아리 운영  
**태백 지역 활성화 방안 탐구 보고서**

---

2022. 10

장성여고 국토교육 동아리  
태새로이

---

# 제 1 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지역 산업기반의 약화,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추세,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지방 소재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두 기간 동안 인구가 연속으로 감소한 곳과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감소했어도 최근 40년간 최대 인구 대비 25% 이상 줄어든 곳을 '축소도시(縮小都市)'로 분류한 결과, 전국의 20개 지방도시가 이에 해당하였다. 강원도 권역에서 축소도시로 뽑힌 곳은 모두 세 곳인데, 동해시와 삼척시, 그리고 태백시다. 특히 태백 지역은 정점인구 대비 현재인구의 감소비율이 50%를 넘는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백·정선 일대의 탄전지대는 과거 석탄산업의 장려로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법이 발효되어 산업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하기 시작, 300여기의 탄광이 폐광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경제활동의 위축 물론 환경문제로서 심각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가동되고 있는 탄광을 동시에 복원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요소들을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존과 적절한 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석탄산업의 호황기까지 훼손되어오고 이제는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자연환경의 복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는 근대화 과정속에서 유희공간들을자연스럽게 발생시키게 되었으며, 이것이 다시금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으로 작용 되며,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철거가 되곤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희 산업시설이 역사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세계적인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태백시 장성광업소 장성탄전은 단일탄광으로는 국내 최대의 탄전이었던 곳으로, 장성광업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한국의 경제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역사적인 탄광으로 2016년까지도 연간 48만t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태백지역 최대 고용규모를 갖춘 탄광이었으나 2024년 폐광될 예정이다. 따라서 태백시는 인구 유입과 산업의 재건,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탈공업화 이후 침체된 도

시발전 동력의 재생, 혹은 재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유산과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유산 및 관광자원과 연결(Networking)하여 해당 자원의 가치를 창조해보려고 한다. 세계적인 관광지와 랜드마크의 유명세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태백시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유산에 대한 장소적,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국내·외의 석탄산업의 쇠락 이후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경우 특히 지역 특성이 비슷한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의 폐광 지역 산업유산 시설을 조사하여 계획적 특징과 활용 양상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지역의 역사적 산업적 유산 및 장소의 문화관광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직접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문헌조사 및 도면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를 위한 특징을 도출하였다.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들어와 국내에서도 산업유산 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특히 유희산업유산의 활용, 관광자원의 활용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분	연구제목(저자, 연구연도 등)
탈공업화 도시구조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형제(2004), 산업도시의 재구조화와 거버넌스, 국토연구 43권</li> <li>▪ 이병민(2004),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권 4호</li> <li>▪ 신동호(2017), 탄광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호주 울런공과 뉴캐슬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연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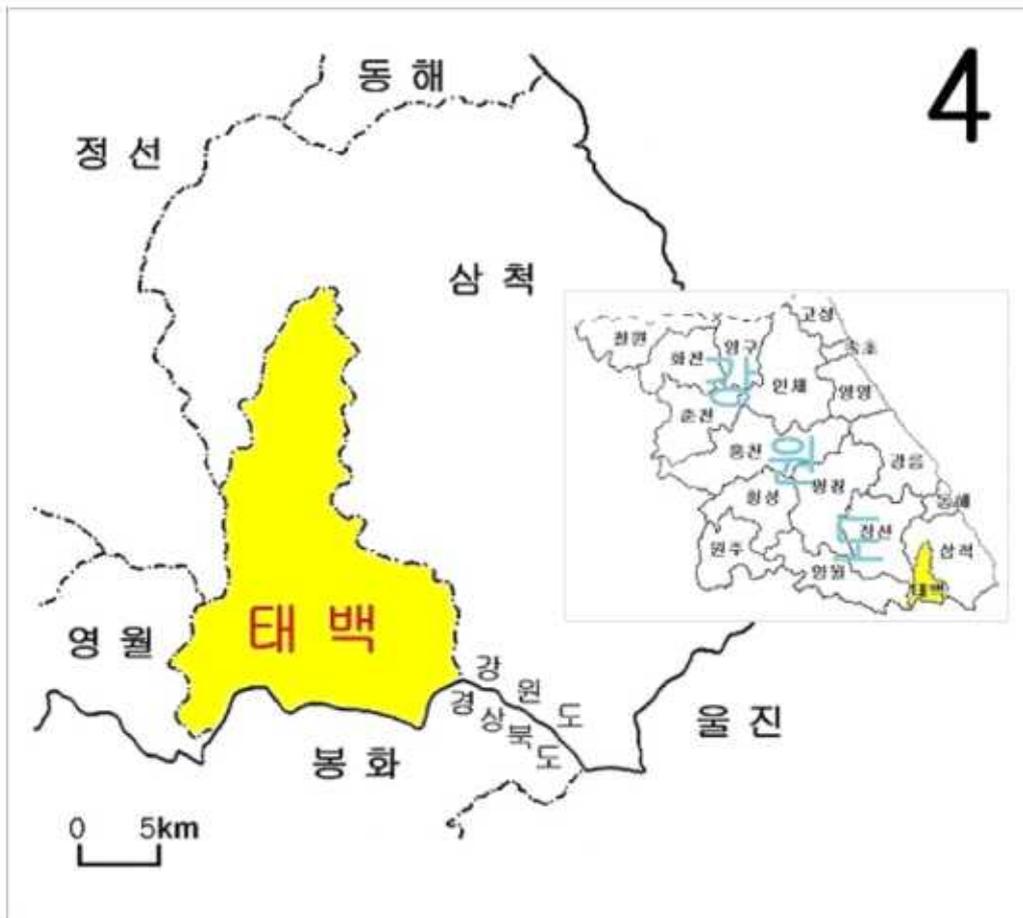
구분	연구제목(저자, 연구연도 등)
폐광지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개발연구원(1996),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연구</li> <li>▪ 강원개발연구원(1998), 폐광지역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li> <li>▪ 남상준(2002), 폐탄광지 폐석적치장 생태복원 녹화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li> <li>▪ 박중근(1994), 태백 폐탄광 재활용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li> <li>▪ 김승희 외(2013),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li> </ul>
문화·관광자원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윤식·강훈·정진훈(2019),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li> <li>▪ 정동원·진세준·한종호(2014),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비용: 강원도 삼척시를 중심으로</li> <li>▪ 강유진(2016), 폐광지역 주민들의 지역 애착도가 관광 개발인식, 혜택,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li> <li>▪ 김장하(2010), 폐광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9권 2호</li> <li>▪ 최규성·이승규(2006),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20권 2호</li> </ul>
문화·관광자원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곽수정(2007),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li> <li>▪ 김미림(2009),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 석사논문</li> <li>▪ 차주영·임강륜(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li> </ul>

## 제 2 장 연구지역 개관 및 분석

### 제1절 연구지역 개관

#### 1) 지리적 여건

태백시는 강원도의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단은 철암동 (동경 129°06'), 남단은 구문소동 (북위 37° 03'), 서단은 문곡소도동 (동경 128° 52'), 북단은 삼수동 (북위 37° 20')이다. 그리고 동서간 27.1km, 남북간 33.8km로 총면적은 303.58km<sup>2</sup>이다. 태백시는 동쪽으로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서쪽으로 영월군과 정선군, 북쪽으로 삼척군 하장면과 동해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을 접하고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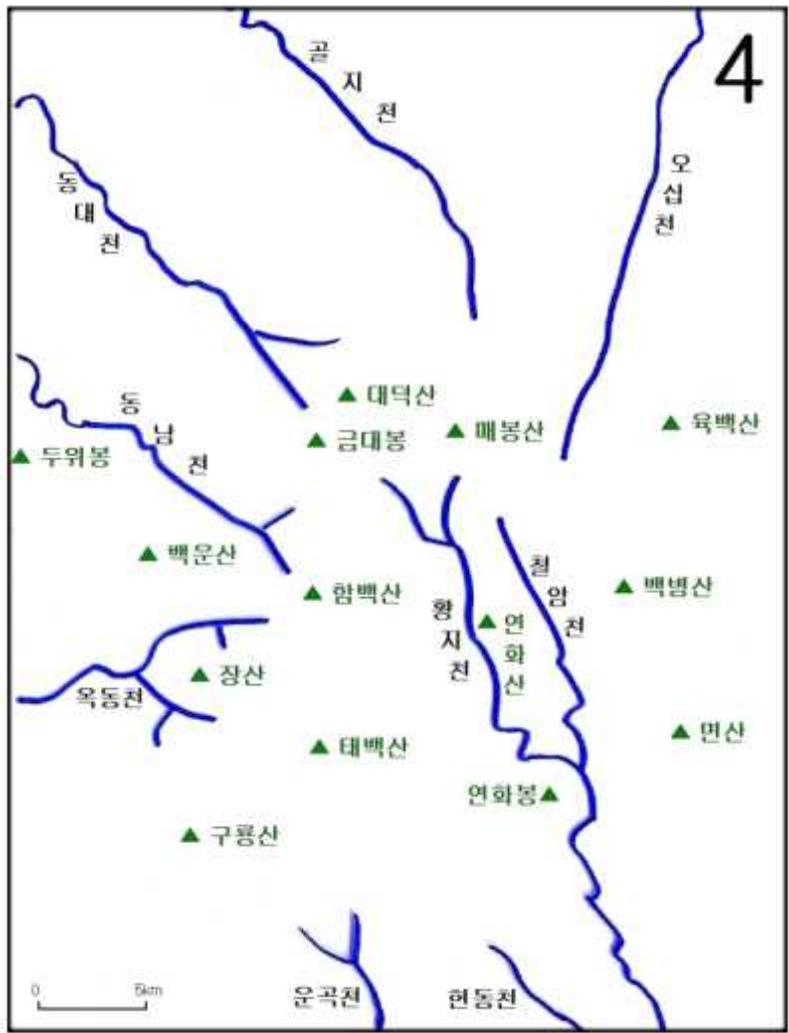


<그림 1> 태백시의 지도

시는 현재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백지역의 전체적인 형태는 삼각형 모양을 띠는데, 그 중심에 연화산

이 있다. 태백시 일대에는 태백산(1,567m)을 비롯하여 함백산(1,573m), 금대봉(1,418m), 두위봉(1,470m), 백운산(1,426m), 장산(1,409m), 대덕산(1,307m), 매봉산(1,268m), 면산(1,246m), 연화산(1,171m), 연화봉(1,030m) 등 고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태백시 일대의 하천들은 태백산과 함백산으로부터 방사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표적인 하천은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골지천, 북동 방향으로 흐르는 오십천, 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황지천과 철암천이다. 그 외에 태백산과 함백산 일대의 북서쪽으로 흐르는 동대천과 동남천, 서쪽으로 흐르는 옥동천이 있으며, 남쪽으로 흐르는 운곡천과 현동천이 있다. 태백산과 함백산 일대의 동쪽으로 흐르는 소규모의 하천들이 골지천과, 황지천, 철암천으로 합류된다. 매봉산의 동북쪽 사면에 위치하는 삼수령<sup>1)</sup>은 황지천, 골지천, 오십천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2> 태백시 일대의 산과 하천

1) 4)삼수령(三水嶺)은 세물이 갈라지는 고개이다. 태백에서 임계로 이어지는 35번 국도변에 피재라는 해발 920m의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바로 삼수령이다. 이곳은 낙동정맥의 시발점이며 한강과 낙동강 오십천의 발원지이다(연합통신, 『향토의 숨결』, 1996, p.179).

## 2) 기후 조건

태백은 한국의 기후 구분상 중부내륙형 기후구와 남부 동안형 기후구, 남부 대륙형 기후구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태백산맥의 정점에서 영서 쪽으로 치우친 고지대 협곡의 고랭지대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추운 산악형 기후를 갖고 있다.

연별 및 월별	기 온 Air temperature(℃)					강수량
	평 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Precipitation
	Mean	Maximum mean	Highest	Minimum mean	Lowest	(mm)
2012	8.4	13.9	20.5	3.6	-2.7	1,523.4

<표1> 태백시의 기후

## 3) 교통 조건

### ① 도로

태백시 총 도로 연장은 2012년 기준 300.75km이며, 이중 일반국도 68.4km, 지방도 12.34km, 시군도가 220.01km이다. 도로 포장률은 64.1%로서 강원 평균 75.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로개설에 따라 포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도의 포장률이 50.9%로 미흡한 상태이다.

구분	2006년		2012년	
	총연장(Km)	포장률(%)	총연장(Km)	포장률(%)
총계	296.05	63.6	300.75	64.1
고속도로	-	-	-	-
일반국도	68.40	100.0	68.40	100.0
지방도	13.64	94.9	12.34	100.0
시군도	214.01	50.0	220.01	50.9
강원도	9,505.75	69.0	9,904.98	75.6

자료 : 태백시, 통계연보, 2013

<표2> 태백시 도로 현황

## ② 광역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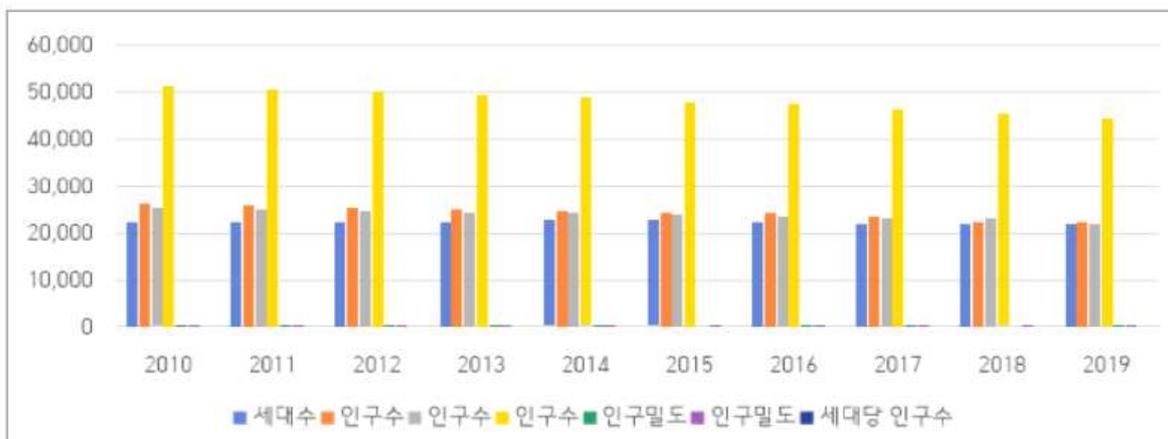
태백시를 통과하면서 태백시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국도 38호선, 35호선, 31호선과 태백선, 태백선이 통과한다. 이 도로는 태백시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지역 간 광역 교통체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태백시 도로망의 문제점은 광역도로망의 경우 국도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간 이동시 통과시간의 증가로 지역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폐특법에 의한 지역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국의 관광통행수요를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지역 간 도로망 확충이 요구된다.

도로명	왕복차로	연결지점 (태백시내 연결지점)	연결방향	접속도로	비고
국도31호선	2~4차로	부산 - 양구 (문곡소도동 - 구문소동)	남북축	국도35호선 지방도414호선	시내관통
국도35호선	2~4차로	부산 - 강릉 (구문소동 - 삼수동)	남북축	국도38호선 국도31호선 지방도412호선	시내관통
국도38호선	2~4차로	과주 - 동해 (삼수동 - 황연동)	동서축	국도35호선 지방도427호선	시내관통

<표3> 태백시 광역도로망 현황

## 4) 인구 조건

태백시의 경우 2010년 총 세대수 22,292세대 51,112명에서 2019년 총 세대수 22,246세대 44,124명으로 감소하였다. 끊임없는 도시재생사업 및 기타 기반 여건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 6,988명까지 줄었다. 세대당 인구수의 경우 2010년 2.3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인구밀도는 2010년 168.4명에서 2019년 145.4명으로 23명 줄어들었다.



<표4> 태백시 인구 현황(2010~2019)

## 제2절 지역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 1) 사례선정의 기준

석탄산업은 세계 에너지 구조의 변화 과정 속에서 서유럽 부터 먼저 폐광화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폐광에 대한 광부들의 저항은 격렬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유치와 지역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면서 도시 재생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성공적인 마을 경제 활성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태백시는 국내 최대의 석탄광업 도시이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탄광 마을의 흔적을 없애고 고원관광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역 문화가 소외되는 일방적인 하향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태백시와 같이 세계 에너지 구조변화로 인해 버려진 폐광지역 마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룬 곳이다. 태백시와 같은 폐광지역의 노후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내·외의 성공한 사례를 선별하여 계획 차원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분		대상지	비고
국외사례	독일 졸페라인	독일 에센 루르 졸페라인 (Zollverein, Ruhr Essen, Germany)	
	영국 게이츠헤드	잉글랜드 타인 위어 주	
	스페인 빌바오	Abandoibarra Etorb., 2, 48009 Bilbo, Bizkaia, 스페인	
국내사례	정선 삼탄 아트마인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사북 석탄유물전시관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57-3	

<표5> 국내외 사례조사 대상지

## 2) 국외 사례

### ① 독일의 즐페라인

독일 에센의 즐페라인 탄광 지대 재생사업은 슬럼화된 폐광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사례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구분	내용		
경관	 <p>외부공간 카페</p>	 <p>독일 에센시 즐페라인</p>	 <p>박물관 및 문화공간</p>
	 <p>루르박물관 Ruhr Museum</p>		 <p>샤프트12 내부의 카페</p>
	 <p>샤프트 12 전망대</p>	 <p>도서관 및 콘서트 홀</p>	
차별성	지역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탄광 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문화시설로의 활용</li> <li>• 지역의 문화적 기능의 중심 허브 기능</li> </ul>
	맥락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주민과 더불어 외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적 맥락성 반영</li> <li>• 기존 시설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시간적 맥락성 구현</li> </ul>
가능성	경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사업의 자원의 다양성을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민참여의 여지를 남김</li> </ul>
	상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운영했던 시설의 재생을 통한 상징성과 더불어 유수의 건축가 참여를 통한 상징성 구현</li> <li>•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적 기능의 공간을 만들어 문화적 상징성 또한 구현</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시설 중심의 재생으로 도시 차원의 접근은 한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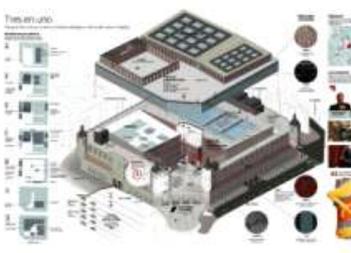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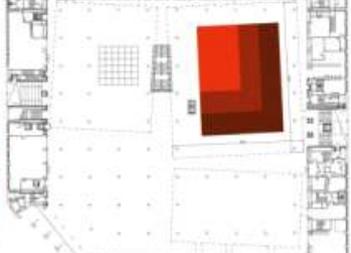
## ② 영국의 게이츠헤드

게이츠헤드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작은 도시이다. 원래 탄광산업으로 유명했던 이 마을은 19세기 산업혁명으로 호황을 누리지만 2차 세계대전과 마가렛 대처 정부의 광산폐쇄정책으로 석탄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며 도시도 황폐해져갔다. 이후 지역의 산업 유산을 자원화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북쪽의 천사 작품의 성공은 게이츠헤드 지역 주민들이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게이츠헤드 지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분	내용		
경관			
	북쪽의 천사	세이지 게이츠헤드	세이지 게이츠헤드 실내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	발틱 현대미술관	타인강변 전경
차별성	지역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이츠헤드와 뉴캐슬의 경계부에 입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생 프로그램 적용</li> <li>도시 곳곳에 지역의 장소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는 가로설계</li> </ul>
	맥락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구현</li> <li>건축이 갖는 시간적 맥락성을 바탕으로 재구조화하여 문화적 기능을 담는 시설로 연계 가능</li> </ul>
가능성	경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의 다양성을 통해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구축</li> <li>프로그램의 차별화와 다양성으로 연중 방문객을 유도</li> </ul>
	상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이츠헤드 진입부 가장 상징적 공간에 북쪽의 천사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입구성 제시</li> <li>다수의 국제적 명성을 갖춘 건축가의 작품을 통해 상징적 의미 강화</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강변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가지 전체의 영역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li> </ul>		

### ③ 스페인 빌바오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바스크 지역의 항구도시이다. 빌바오가 전 세계적인 지역재생의 우수사례로 부상하게 된 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영향 때문이었다.

구분	내용		
경관			
			
			
지역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의 개조 및 재생 사업 추진</li> </ul>	
차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건축물과 도시공간과의 맥락성이 다소 떨어지나 녹지공간의 연속적인 계획으로 공간과의 연계 강화</li> <li>공간의 연계와 시간적 재생을 통한 맥락성 구현 의지</li> </ul>	
가능성	경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자원마련의 다양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li> </ul>
	상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르비온 강변을 중심으로 현대적 분위기의 오피스존과 더불어 구겐하임을 조성하여 빌바오의 상징성 구현</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빌바오 구겐하임에 편중된 도시재생 사업 결과물로 인하여 향후 풍부한 재생의 노력이 요구됨</li> </ul>		

### 3) 국내사례

#### ① 정선 삼탄 아트마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에 위치하고 있는 삼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은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해오다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폐광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된 본시설은 상대적으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접근성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시 기법에 있어 기존 폐광 시설을 연상할 수 있는 장소적 기억의 대상으로서 철로와 주요 공간을 보전하여 장소성을 살려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대 미술등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구분	내용		
경관			
	삼탄아트마인의 외부전경		
			
	레일바이뮤지엄		
차별성	지역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탄광 자리에 위치해 기존 탄광시설을 활용하고 있음</li> <li>• 주위 철도와 연계되어 맥락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li> </ul>
	맥락성	◎	
가능성	경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도 입구의 높은 시설물과 기존 내부 철로 등으로 상징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li> <li>• 주위 관광자원과 연계성이 부족</li> </ul>
	상징성	◎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시설을 활용한 체험시설과 뮤지엄,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상징성은 있으나 주위 관광 요소와의 연계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li> <li>•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적인 관광요소의 개발이 필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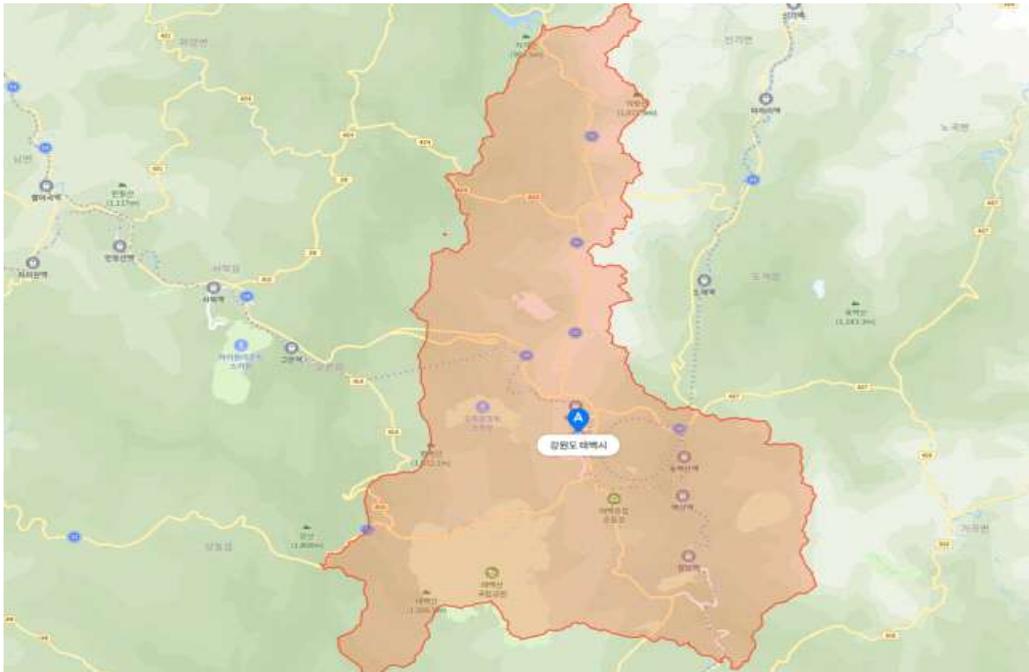
## ② 사북 석탄유물전시관

사북탄광은 재직광원이 6,300명에 이르고 1987년 석탄생산이 200만 톤을 넘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탄광이었다. 석탄합리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석탄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시설이용의 사항길을 걷다가 2004년 10월 31일에 문을 닫았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문을 닫기 전광부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석탄유물보존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탄광과 광산시설물철거 현장에서 석탄을 캐는 심정으로 광산의 유물이 될 만한 것을 모두 수집했고, 그 열정과 노력으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사북석탄유물전시관이 만들어졌다. 사북 석탄유물전시관은 탄광 주민들 스스로 눈물어린 석탄 광부들의 애환 역사를 보듬어 가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공간 특성은 장소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 전시공간 계획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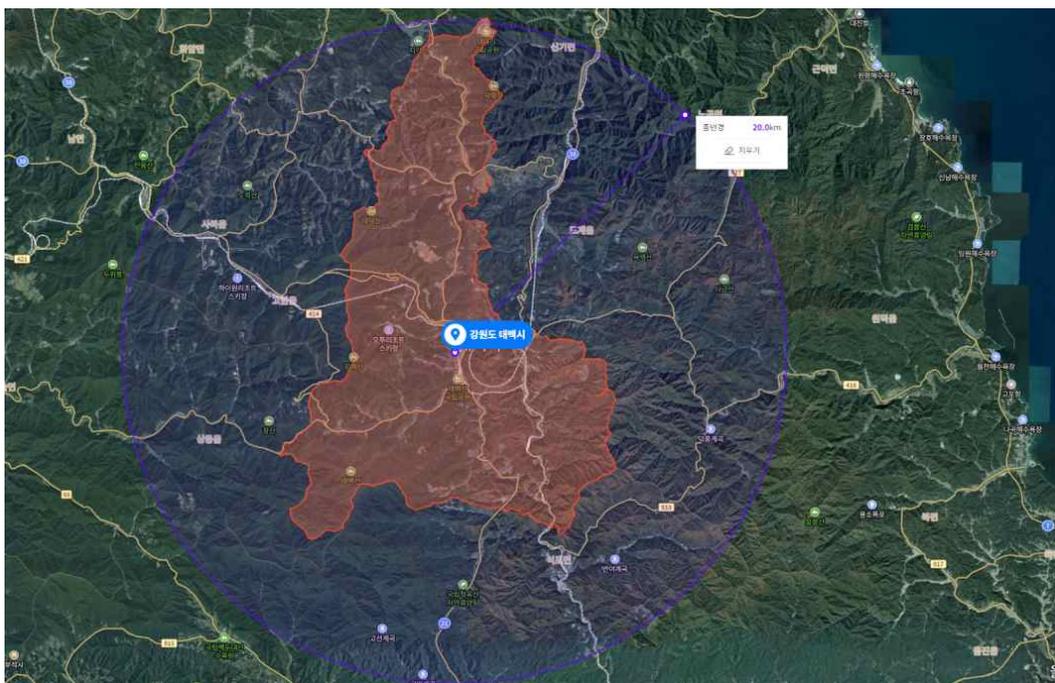
구분	내용		
경관	 <p data-bbox="363 1252 655 1283">사북 석탄유물전시관 전경</p> <p data-bbox="900 1252 1257 1283">석탄유물전시관의 다양한 시설들</p>		
차별성	지역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탄광 자리에 위치해 기존 탄광시설을 활용하고 있음</li> <li>• 주위 철도와 연계되어 맥락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li> </ul>
	맥락성	◎	
가능성	경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도 입구의 높은 시설물과 기존 내부 철로 등으로 상징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li> <li>• 주위 관광자원과 연계성이 부족</li> </ul>
	상징성	◎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험시설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징성은 있으나 주위 관광 요소와의 연계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li> <li>•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적인 관광 요소의 개발이 필요</li> </ul>		

### 제3절 대상지 범위 설정

- 연구의 대상지는 태백시 행정구역으로 정한다. 단, 태백시의 중심권이 남부측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타 지역 행정구역과 경계에 존재하는 타지역 중심보다 태백시 중심(태백시청)으로부터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km를 연구범위로 설정함.



<그림3> 태백시 행정구역 지도



<그림4> 태백시청 반경 20km

## 제4절 연구 대상지 분석<sup>2)</sup>

### 1) 대상 지역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 ① SWOT 분석

##### 가. 강점요인 (Strengths)

강원도 태백시가 가진 강점요인의 가장 첫 번째는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개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태백산, 함백산 등 고원준령의 빼어난 지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산림자원의 가치는 매우 크다. 나아가 황지연못(黃池)이라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의 상징성 또한 태백시가 가진 중요한 가능성 중 하나이다.

두 번째는 고원한랭의 기후조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힐링 어메니티 인프라(Healing Amenity Infrastructure)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지정은 물론, 다양한 위락·스포츠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사계절 축제를 위한 바탕 자원으로 기능하며, 고랭지에 특화된 1차 산업 기반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폐광도시라는 낙후된 도시이미지의 차원을 넘어 탈공업화 도시이미지의 역발상을 지향할 수 있다. 폐특법의 시효 연장에 따른 재정적 강점도 있으며, 정선 카지노의 배후 입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또한 가능하다. 폐광지역 이미지의 관광상품화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 나. 약점요인 (Weaknesses)

태백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요인으로서 첫 번째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이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로 인하여 가용토지의 부족과 개발비용의 과다는 심각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 및 교육·문화 등의 태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역시 태백시의 고질적 약점요인이다.

두 번째로 석탄산업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인구감소의 지속화와 노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체계의 왜곡 심화,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환경의 불균형 가속화, 인구의 역외유출과 공동화로 인한 열악한 정주환경의 지속, 그리고 3차 산업 중심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취약한 지역경제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여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탈공업화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다. 여전히 태백시는 폐광에 대한 아쉬움과 탄광도시의 맹목적 향수에 젖어 있다. 지역 정체성을

2) 대상지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해 대상지 마을을 3회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과 여건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과 직접 조사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반영한 도시이미지 만들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 다. 기회요인 (Opportunities)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에 반해 기회요인 역시 상존한다. 우선, 석탄산업 대체에 따른 다양한 보상적 개발이 가능하다. 폐특법 시효 연장에 따른 재정적 여건 개선과 오투리조트(O2Resort)매각 및 대체 사업자 선정에 따른 태백시 재정 안정성의 증대,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요와 정부시책 확대도 예상된다.

두 번째로 소득여건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소득의 지속 증가와 주 5일제 등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의 변화와 정착, 전국적 인구노령화에 따른 실버산업 수요 증대 등도 주요한 기회요인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낙수효과도 기대된다. 강원남부 도로 및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대되며, 올림픽 기반 관광수요 등의 낙수효과도 노릴 수 있고, 강원지역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도 증대될 것이다.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등 유사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지자체와의 전략적 연대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폐광지역 경험 공유 지자체간 전략적 연대가 가능하고, 속초시가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등 백두대간 개발 사례도 참고 가능하다.

#### 라. 위협요인 (Threats)

장차 태백시의 발전전략과 실천방안을 위협할 주요 요인으로, 첫째 인구구조의 왜곡 심화를 들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지속화, 고령화 및 청장년 인구의 감소 등 인적 구조 왜곡의 심화는 태백시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수도권 개발제한 정책 완화 요구 증대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 선회 가능성 역시 증대되는 것이다.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 지역구 확대 조정(태백-정선-영월-횡성)등도 주요한 정책적 위협요인이다.

지자체별 유사산업 경쟁 역시 심화될 것이다. 폐광지역이미지 등의 관광상품화 정책은 중복될 수 있고, 실버·힐링 등 유사 대체산업 정책 역시 중복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자연환경 보존정책은 토지이용 제약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백두대간 보전법 등 각종 규제정책 등으로 인한 개발 여건의 제한은 심화할 것이고, 양대강발원지의 상징성과 상류지역으로서의 실질적 개발 제한성은 대립할 것이다. 수량(水量)의 절대적 부족 등 상류지역의 물리적 환경 또한 제한적이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의 대표적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개발 가능성 상존</li> <li>■ 고원한랭의 기후조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힐링어메니티 인프라 확보에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여건의 한계 취약한 교통·물류 인프라</li> <li>■ 석탄산업 붕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약화</li> <li>■ 탈공업화 이후 도시정체성약화</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산업 대체에 따른 다양한 보상적 개발 가능</li> <li>■ 소득여건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증대</li> <li>■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낙수효과 기대</li> <li>■ 유사 환경 공유 인접 지자체와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li> <li>■ 탈공업화 도시이미지의 역발상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의 왜곡 심화</li> <li>■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회 가능성 우려</li> <li>■ 지자체별 유사산업 경쟁심화</li> <li>■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자연환경 보존정책과 토지이용 제약성의 증대</li> <li>■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우려</li> </ul>

<표6> SWOT 분석

## ② SWOT 대응전략

S - O 전략(활용)	W-O 전략(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1: 고원관광레저스포츠도시 이미지 활용 - 산소와 숲의도시</li> <li>■ SO2: 신재생에너지특화건축 도입 - 패시브 건축</li> <li>■ SO3: 디자인도시로의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1:도시이미지 재편</li> <li>■ WO2:블럭중심 개발</li> <li>■ WO3:보행중심도시로 전환</li> <li>■ WO4:대체 교통수단 도입(TRAM등)</li> <li>■ WO5:도시장벽의매개공간화</li> <li>■ WO6:생활권역 연계 강화</li> </ul>
S-T 전략(맞섬)	W-T 전략(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1:실버의료특화도시(O2-HEALING CITY)</li> <li>■ ST2:공유경제도시(게스트하우스 '산소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1:지자체 간 연대 강화</li> <li>■ WT2:산·학·연 연계 강화</li> <li>■ WT3:지역성 기반의 싱크탱크</li> <li>■ WT4:거버넌스 중심 실천주체</li> </ul>

<표7> SWOT 대응전략

## 2) 대상 지역 키워드 분석

폐광지역은 1995년부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가 설립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폐광지역의 부흥을 계획했으나 도시 정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는 반대로 장기적인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은 미흡하였다. 결국 지난반세기에 걸쳐 6억 톤 이상의 석탄을 공급하던 폐광지역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이라는 명성보다는 <그림 2>의 연관키워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힘들다”, “인구감소”, “어렵다”, “침체되다”등 부정적 이미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림5> 폐광지역에 관한 키워드 분석

특히 폐광지역에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과 동시에 유흥시설과 전당포가 난립하면서 ‘도박의 도시’, ‘부정적’, ‘불쾌함’ 등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폐광지역에 관한 감성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자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광지역 관련 뉴스 키워드는 지역경제, 지원사업과 더불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뉴스이용자의 댓글에서 폐광지역과 관련한 논의는 ‘카지노’, ‘도박’, ‘비리’, ‘부정’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원랜드의 부정적 이미지가 뉴스이용자 사이에서 실제로 수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이미지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화된 수용자 인식 분석을 참고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은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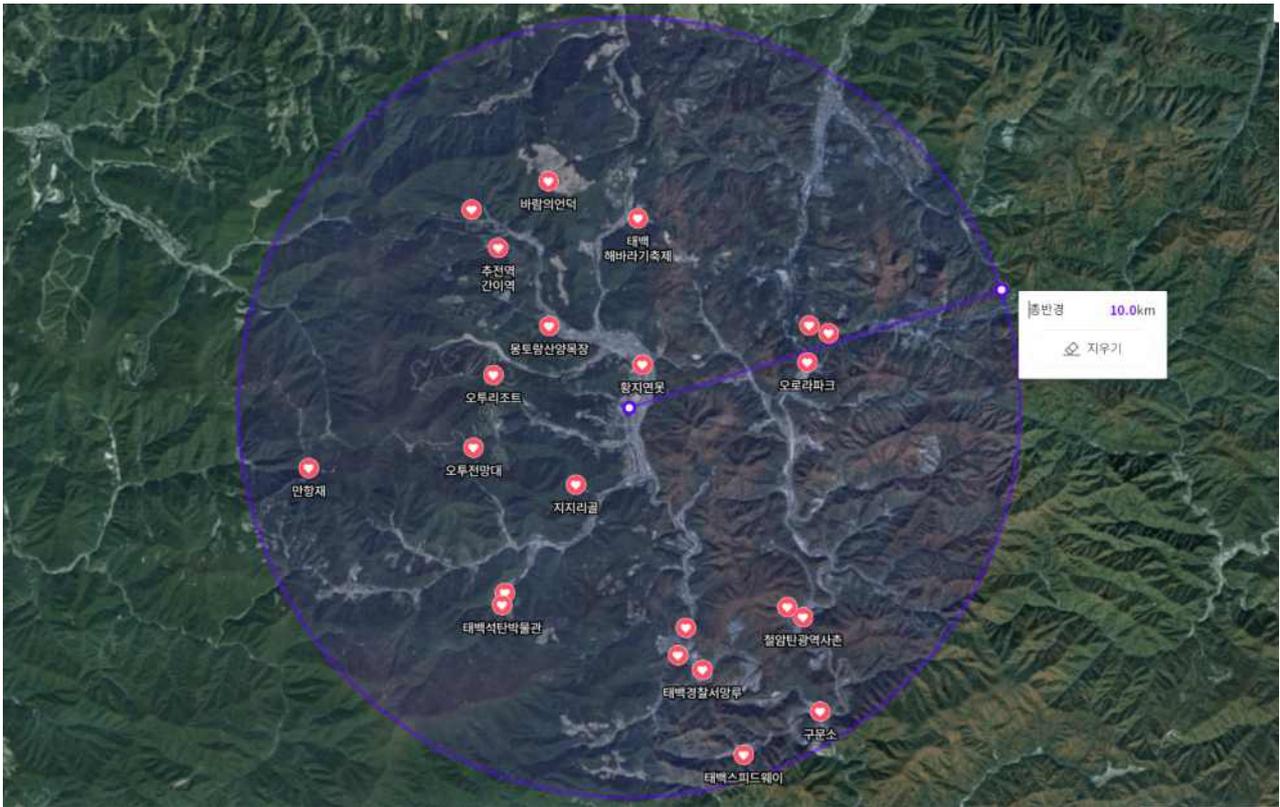
## 제 3 장 태백의 유산(자원)과 세계 명소 연계

### 제1절 태백의 유산(자원) 발굴

#### 1) 지역 유산(자원) 목록

구분	지역의 자원	대표 속성	세계적 연계	세계적 장소
1	바람의 언덕	#풍력발전 #바람개비 #풍차	덴마크	해상풍력발전단지
2	용연동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동굴	미국	칼즈배드 동굴
3	추전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	중국	티베트 탕구라역
4	몽토랑 산양목장	#한국의 스위스 #한국의 알프스	스위스	그린델발트
5	쿨시네마	#고원 시네마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6	만항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도로	독일	뉘른부르크링
7	태백스피드웨이	#한국의 뉘른부르크링	독일	뉘른부르크링
8	오투전망대	#고원 전망대 #산소도시 #마운틴뷰	페루	마추픽추
9	태백산 눈축제	#순백의 설레임 #눈·얼음조각	일본	삿포르 눈축제
10	지리지골	#자작나무 #자작나무숲	핀란드	자작나무숲
11	장성이증교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스페인 프랑스	세고비아 수도교 가르주 가르교
12	장성수갱	#탄광 #수직갱도 #랜드마크	독일	졸페라인 샤프트12
13	태백경찰서 망루	#방어시설 #역사유적	아일랜드 호주	워터포드 레지널드 카마이 보타니 망루
14	구문소	#동굴 #퇴적암 #석회암 #용	베트남	산동동굴 하롱베이 루언동굴
15	철암역두선탄장	#근대산업문화재 #근대 산업사의 상징	독일	졸페라인
16	철암까치발건물	#탄광역사촌 #건축사	프랑스	콜마르
17	발원지축제	#한강 #낙동강 #물축제	태국	송크란축제
18	황지연못	#낙동강 발원지 #공원 #정원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정원
19	해바라기축제	#해바라기밭	일본	아케노 해바라기축제
20	추추파크	#산악열차 #레일바이크	스위스	인터라켄 산악열차
21	통리협곡 미인폭포	#한국의 그랜드캐니언 #에메랄드빛	라오스	루앙프라방 팡시폭포
22	오로라파크	#전망대 #랜드마크	미국	뉴욕 베슬

## 2) 지역 유산(자원) 지도화



## 3) 태백의 유산(자원) 유목화 - 연계 국가 대륙 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일본 - 해바라기축제 일본- 삿포르눈축제 중국 - 탕구라역 라오스 - 팡시폭포 태국 - 송끄란물축제 베트남 - 하롱베이 베트남 - 선동동굴	핀란드 - 자작나무 숲 덴마크 - 풍력발전단지 아일랜드 - 레지날드망루 프랑스 - 가르교 프랑스 - 콜마르 프랑스 - 모네의정원 프랑스 - 칸영화제 독일 - 졸페라인 독일 - 뉘른베르크링 스위스 - 인터라켄 스위스 - 그린델발트	미국 - 칼즈배드 동굴 미국 - 뉴욕 베슬 페루 - 마추픽추	호주 - 카마이 망루
총 5개국 8개소	총 6개국 12개소	총 2개국 3개소	총 1개국 1개소

### 3) 태백의 유산(자원) 유목화 - 유산 종류 별

산업유산	교통시설 유산	역사·문화유산	자연유산
철암역두선탄장 철암까지발건물 장성수갱 장성이중교	추전역 만항재 태백스피드웨이 추추파크 오로라파크	태백경찰서 망루 발원지축제 해바리기축제 태백산 눈축제 쿨시네마 오투전망대	바람의 언덕 용연동굴 몽토랑 산양목장 황지연못 지지리골 구문소 통리협곡 미인폭포
총 4개소	총 5개소	총 6개소	총 7개소

## 제2절 태백의 자원과 세계 명소 연계(Networking)

### 1) 세계 명소 연계(Networking)



## 2) 세계 명소 대륙별 연계(Networking)



## 2) 태백 - 세계 명소 연계 지도 (Networking Map)



세계지도 - 태백과 관련된 여행지

### 제3절 태백에서 세계여행 기획

#### 1) 아시아 여행

<코스예시> : 일본 - 중국 - 태국 - 라오스 - 베트남

##### ① 한국의 삿포르

삿포르 눈축제	태백산 눈축제
	
<p>일본 홋카이도 삿포르시에서 매년 2월 초에 열리는 겨울 축제. 삿포르 유키마쓰리(さっぽろ雪まつり)라고 한다. 국내외 약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카니발과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라 불리며, 겨울 눈축제로서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와 쌍벽을 이룬다고 일컬어지는 행사다.</p>	<p>태백산 눈축제는 해발 700m에 위치한 고원 도시 태백의 지역적 특색을 토대로 겨울의 눈을 소재로 한 태백의 대표 축제이다. 199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1월 수려한 태백산 설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눈조각 작품과 겨울놀이를 소개하는 국내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눈조각 전시, 태백산 등반대회를 비롯하여 이글루카페, 별빛페스티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순백의 설레임 #눈·얼음조각</p>	

② 한국의 아케노

아케노 해바라기 축제	태백 구와우 해바라기 축제
	
<p>일본에서 가장 일조시간이 긴 호쿠토시의 해바라기는 키가 크고 선명하다. 남쪽 알프스, 야츠가 타케, 후지산을 배경으로 60만개의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다. 아케노 해바라기 밭에서는, 매년 해바라기가 활짝 피는 시기에 '호쿠토시 아케노 선플라워 페스'라는 이름의 해바라기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밭에는 약 6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핀다.</p>	<p>태백 구와우 영농조합, 마을축제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순수 민간주도형 축제이다. 자연보다 더 훌륭한 작품은 없으므로 그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대지라는 캔버스 위에 해바라기의 노란색을 칠하고 예술가들의 인간적인 행위를 더하여 건강한 공간, 자연스러운 곳, 가보고 싶은 장소,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년 해바라기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해바라기밭 #산지를 배경으로 한 고원 해바라기밭</p>	

③ 한국의 티베트(한국의 탕구라역)

<p>세계에서 가장 높은 역 탕구라역</p>	<p>한국에서 가장 높은 역 추전역</p>
	
<p>중국 티베트 자치구 나취시 안뒤현에 위치한 중국철도칭짱그룹소속의 여객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무인철도역이며 2006년 7월 1일에 개업했다. 칭짱철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도역이다</p>	<p>추전역은 해발 855m에 위치한,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역이다. 1973년 태백선 철도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에 걸맞게 그 높이가 대관령 고갯길과 비슷하며, 연평균 기온이 대한민국의 기차역 가운데 가장 낮아 한여름을 제외하면 항상 난로를 피워야 한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p>	

④ 한국의 선동동굴

베트남 선동동굴	태백 구문소
	
<p>선동 동굴(베트남어: Hang Sơn Đoòng / 山洞)은 베트남 광빈성 보짜현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천연 동굴로 길이는 6.5 km, 높이는 200m, 넓이는 150m이다. 이곳은 풍나깨방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노이 남쪽으로 45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굴이다. 라오스-베트남 국경 근처에 위치한 선동동굴은 내부로 빠르게 흐르는 지하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의 단면을 가지고 있고, 200만~500만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동동굴은 지상 최대의 동굴로 여행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에 의해 올해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됐다.</p>	<p>태백 구문소(求門沼)는 황지천 하구의 물길 가운데 있다. 구문(求門)은 구멍·굴의 옛말이며 '굴이 있는 늪'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현재의 황지천은 하식동굴과 구문소를 지나 흐르면서 철암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 동굴이 뚫리기 이전의 황지천은 동굴의 남서쪽을 크게 휘돌아 곡류하였으나 동굴이 뚫림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 태백 구문소 부근의 석회암에는 건열, 물결자국, 새눈구조 등의 퇴적구조와 삼엽충, 완족류, 두족류 등의 다양한 생물 화석이 나오고 있어 고생대 퇴적환경과 생물상을 동시에 볼 수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동굴 #퇴적암 #석회암</p>	

⑤ 한국의 하롱베이

베트남 하롱베이 루언동굴	태백 구문소
	
<p>베트남 하롱베이 이름의 유래는 한자 그대로다. 즉, Ha(下)는 "내려온다", Long(龍)은 "용"이란 뜻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다. 바다 건너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용과 그의 가족이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들을 내뿜었는데 그것들이 바위가 되어서 할롱만의 섬들이 되었다고 한다.</p>	<p>옛날 구문소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석벽을 사이에 두고 두 용이 서로 낙동강의 지배권을 놓고 항상 다투었다. 어느날 백룡이 꾀를 내어 석벽 위에서 싸우다 내려와 석벽 밑을 뚫으며 공격을 하여 청룡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승천하였다고 한다. 백룡이 승천할 때 지나간 산을 용우이 산이라 하는데 구문소 앞에 솟은 산이다. 따라서 '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동굴 #퇴적암 #석회암 #용</p>	

⑥ 한국의 루앙프라방(한국의 팡시폭포)

라오스 팡시 폭포	통리협곡 미인폭포
	
<p>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손꼽히는 팡시 폭포는 폭포 아래로 에메랄드 빛 웅덩이들이 계단식으로 구비구비 이어져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카르스트 지형 덕분에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 폭포로, 에메랄드빛 웅덩이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진다.</p>	<p>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지질학적 특성이 비슷한 통리 협곡 내에 위치한 비고 30m의 폭포로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 신비로운 비취색의 물빛이 특징이며 특히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는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도 관찰된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한국의 그랜드캐니언 #에메랄드빛 #비취색 물</p>	

⑦ 한국의 송크란축제

태국 송크란 축제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p>세계 10대 축제에도 선정된 태국의 '송크란 (Songkran)'을 빼놓고 물 축제를 논할 수 없다. 송크란은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한 태국어로 '이전' 혹은 '자리 변경'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것은 한 해가 새로운 태양력을 맞이해 바뀐다는 의미다. 태국력으로 새해 첫날인 4월 13일을 축하하는 이 축제는 태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물 축제다. 농업 국가인 태국에서 물은 최고의 신성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축제 내내 물을 서로에게 끼얹는 행위는 묵을 때를 벗기고 정화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p>	<p>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태백의 시원한 기후와 발원지를 테마로 2016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축제이다.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쿨시네마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은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황지연못과 검룡소에서 분수터널, 이슬비터널, 소원의 숲, 야생화 트래킹 등 발원지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물축제</p>	

## 2) 유럽 여행

<코스예시> : 스페인 - 프랑스 - 독일- 스위스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 ① 한국의 수도교

<p>스페인 세고비아(Segovia) 수도교</p>	<p>태백 장성 이중교</p>
	
<p>서기 50년 무렵에 건설된 세고비아(Segovia)의 로마 시대 수도교(水道橋)는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 2층 아치로 된 이 인상적인 건축물은 웅장한 역사도시 세고비아의 도시 배경 형성에 한몫하고 있다.</p>	<p>태백 장성 이중교는 1935년 건설된,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태백 장성 이중교는 1935년 장성탄전에서 생산된 탄광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설계된 다리로, 일제강점 말기에는 군수물자를 수송했다.</p>
<p>프랑스 가르교</p>	<p>태백 장성 이중교</p>
	
<p>가르교는 프랑스 옥시타니 가르주 가르동 강에 놓인 고대 로마 시절의 수도교이다.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3층의 거대한 아치로 이루어졌으며, 가르동 계곡에서 49m 높이로 건설되었다.</p>	<p>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전쟁 후 국가 재건과정에서도 장성광업소의 발전과 함께 태백 장성 이중교는 안정적인 석탄 에너지 공급에 이용되면서 공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 가장 오래된 다리</p>	

② 한국의 지베르니 (한국의 모네 정원)

지베르니(Giverny) 모네의 정원	태백의 황지연못
	
<p>파리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지베르니 (Giverny)는 인상파 거장 모네의 삶에 담긴 비밀과 그가 남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모네는 43년간 지베르니에 거주하며 &lt;수련&gt; 연작을 비롯한 여러 대표작을 완성하고, 꽃이 만발한 정원을 가꾸었다. 특히 물의 정원, 클로드 모네 재단의 화룡점정이다. 물의 정원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버드나무와 꽃으로 가득하다. 클로드 모네는 바로 이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lt;수련&gt; 연작을 완성했다.</p>	<p>태백역에서 가까이 있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황지연못은 태백시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다. 걸보기에 웅장하지는 않지만, 경상도의 젓줄이라 불리는 낙동강 1300리 물길의 발원지임을 새겨둔 바위를 발견한 뒤엔 다시 보이는 곳. 상지, 중지, 하지로 나뉘는 연못은 상지의 둘레가 100m 정도다. 결코 크지 않은 이 못에서 하루에만 5,000톤이 넘는 물이 샘솟는다니 또 한 번 놀랍다. 이 물이 강원도를 흘러흘러 경상도의 물길을 잇고 저 남쪽 부산까지 들어가는 것이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낙동강 발원지 #공원 #정원</p>	

③ 한국의 칸 (한국의 칸느)

프랑스 칸 영화제	태백 쿨 시네마
	
<p>프랑스의 영화제. 매년 5월 개최되며, 개최지는 프랑스 동남부 도시 칸(Cannes)이다.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 함께 일명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린다. 영화제 엠블럼은 종려나무의 잎사귀에서 따왔으며, 그에 걸맞게 경쟁부문에서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황금종려상이 이 엠블럼으로 만들어진다. 공식 장영관은 뤼미에르 극장이지만 해변의 영화관(Cinéma de la plage)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오픈 시네마처럼 개봉작이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다. 이름처럼 해변에다 은막을 설치해 상영한다.</p>	<p>태백시는 낙후된 탄광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태백의 서늘한 여름 기후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축제를 개발한 것으로 태백시의 대표 여름축제로 발전하였다.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연예인 초청공연, 상모판굿, 평양예술단 공연, 밴드공연, 댄스공연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영화 관련 체험 이벤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리기에 손색없는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고원 시네마 #영화제</p>	

④ 한국의 콜마르 (한국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프랑스 콜마르	태백 철암 까치밭 건물
	
<p>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실제 배경이 된 마을 프랑스의 작은 도시 콜마르다. 동화마을로 유명한 콜마르는 16세기 알자스 지역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도시다. 돌 조각이 촘촘히 박힌 좁은 골목, 아름다운 간판이 걸린 파스텔 톤 건물, 운하를 따라 늘어선 카페 등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콜마르로 이끈다. 특히 영화 속에서 하울이 소피를 안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에 등장한 반 목조건물은 옛 시가지의 가옥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다.</p>	<p>1960년대의 한국을 보여줌으로써,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 바로 철암 탄광역사촌이다. 현재의 문명은 전혀 느낄 길이 없이, 오롯이 60년대의 정서를 그대로 살린 역사마을이라 할 수 있으며, 하천으로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 세운 까치밭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좀 더 건물을 높게 지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물 곳곳마다 금이 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마치 주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들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 수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탄광역사촌 #건축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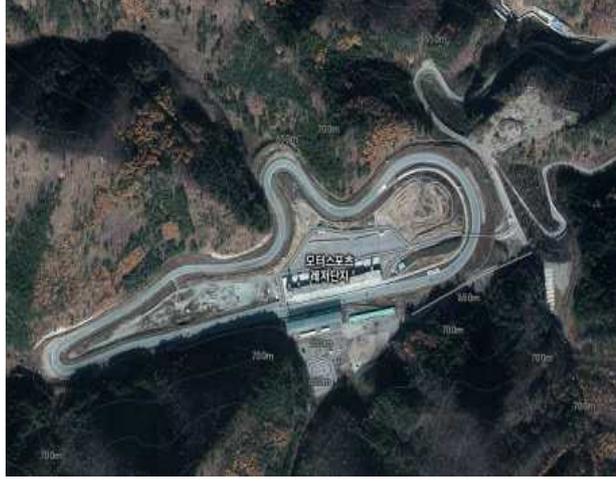
⑤ 한국의 줄페라인

독일 에센 줄페라인	태백 철암역두 선탄장
	
<p>도시재생의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한 해외 사례의 으뜸은 바로, 폐광으로 버려져 방치된 장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일의 줄페라인입니다. 이곳에는 탄광박물관인 루르 뮤지엄, 레드닷디자인뮤지엄을 비롯해 갤러리 공연장 심포지엄 및 박람회장, 작가 스튜디오 수영장 등이 산재해 있다. 에센의 폴크방조형 대학 분교 건물도 있다. 2010년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가 리노베이션해 세련된 터치를 더한 곳들이다.</p>	<p>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국내 최초 무연탄 선탄시설이다. 태백은 국내 최대의 탄전지대로, 그 중 철암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석탄 산업사에 있어 상징적인 도시다. 철암역두 선탄장은 원탄저장 및 운반, 경석 선별 및 파쇄운반, 1.2.3차 무연탄 선탄, 이물질 분리, 각종 기계 공급 및 수선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암역두 선탄장은 근대 산업사의 상징적인 주요 시설로 인정받아 2002년 등록문화재 제 21호로 선정되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탄광 #근대산업문화재 #근대 산업사의 상징</p>	

⑥ 한국의 샤프트12

독일 에센의 에펠탑 '샤프트 12'	태백 장성 제2 수갱
	
<p>졸페라인의 상징인 58미터 높이의 거대한 지상 채탄시설인 수직 갱 샤프트12이다. 1932년 마지막으로 건설된 갱도인 '샤프트12'에는 예전 석탄 세척공장, 중앙제어실, 전기실, 보일러실, 고압·저압 압축실 등으로 사용됐던 건물들이 예술품처럼 들어서 있다. 샤프트 12는 바우하우스의 마지막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제자인 프리츠 슈프와 마르틴 크레머가 설계했다.</p>	<p>수갱은 수직갱도의 준말로 일본식 발음으로 '다대꾸'라 한다. 갱도가 깊어짐에 따라 사갱으로 운반하기에는 거리가 길어지고 인력, 자재, 석탄 등을 올리고 내리는 권양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직갱을 설치한다. 수갱은 광석, 자재, 인원, 동력, 공기 등을 공급하는 길로 활용되는데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에는 공기를 공급하는 통기수갱까지 설치되어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탄광 #수직갱도 #랜드마크</p>	

⑦ 한국의 뉘른부르크링

독일 뉘른부르크 링	만항재와 태백스피드웨이
	
<p>독일 중서부 라인란트-팔츠 주의 뉘른부르크 (Nürburg)에 있는 서킷이며 국립 몬차 자동차 경주장, 라 사르트 서킷, 스파-프랑코상 서킷, 실버스톤 서킷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서깊은 서킷. 흔히 뉘른부르크링이라 부르는 것은 북쪽서킷인 Nordschleife (노르트슐라이페)이며, 남쪽에는 쇼트 서킷인 '쥐트슐라이페 (Südschleife)'가 있다.</p>	<p>만항재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와 태백시 혈동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다. 높이는 해발 1,330m, 도로 경사는 10%이다.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기도 하다. 만항재 주변의 태백스피드웨이는 해발고도 700m가 넘는 고원 지대에 조성되었으며, 연화광업소에서 400만톤의 슬러지를 매립하던 매립지였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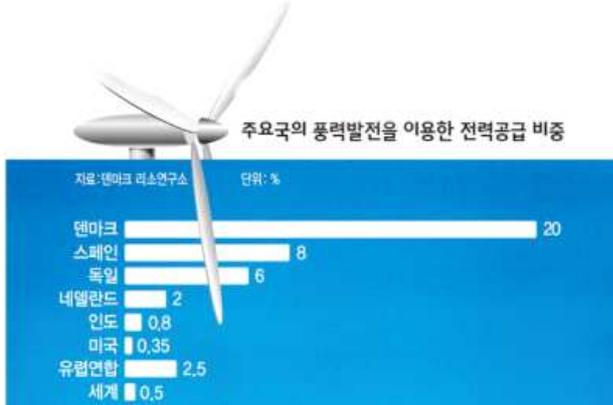
⑧ 한국의 스위스 (한국의 그린델발트)

스위스 그린델발트	몽토랑 산양목장
	
<p>알프스 산맥 아이거 기슭에 위치하며 인터라켄과 가까운 편이다. 융프라우 철도가 이 곳을 지나간다.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몰리며 겨울철에는 스키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몰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융프라우 ~알레취~비에치호른 지역의 관광이나, 등산·트레킹의 거점이다.</p>	<p>몽토랑목장은 해발 800m의 고원청정도시 태백에 위치한 유산양 목장입니다. 산양유는 haccp인증 시설에서 생산하여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과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역주민, 청년들과 사육, 생산, 유통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합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한국의 스위스 #한국의 알프스</p>	

⑨ 한국의 스위스 (한국의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p>스위스 산악 열차 베르니나 익스프레스</p>	<p>태백권 산악 열차 추추파크</p>
	
<p>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스위스 엥가딘 알프스를 횡단하여, 스위스의 쿠어 와 스위스의 포스키아보, 이탈리아의 티라노를 연결하는 열차이다. 대부분의 여행 동안 기차는베르니나 풍경의 래티세 철도로 알려진 세계문화유산을 따라 달린다.</p>	<p>국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산악형 레일바이크가 태백시 통리와 삼척시 추추파크를 연결한다. 태백준령이 내려다보이는 해발 720M 정상에서 최고 25km의 속도로 산기슭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 레일바이크로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산악열차 #레일바이크</p>	

⑩ 한국의 덴마크(한국의 북해)

덴마크 풍력단지	바람의 언덕 풍력단지																		
																			
<p>북유럽의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소비 전력의 42%를 바람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비중을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2050년부터 전력 생산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p>	<p>백두대간에 낙동정맥이 분기하는 매봉산은 천의봉(하늘 봉우리)이라고도 하며 남한강과 낙동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태백의 산들이 두루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과 거대한 풍력발전단지, 산아래부터 정상 근처까지 펼쳐진 40만여 평의 고랭지채소밭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p>																		
 <p>주요국의 풍력발전을 이용한 전력공급 비중</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비중 (%)</th> </tr> </thead> <tbody> <tr> <td>덴마크</td> <td>20</td> </tr> <tr> <td>스페인</td> <td>8</td> </tr> <tr> <td>독일</td> <td>6</td> </tr> <tr> <td>네덜란드</td> <td>2</td> </tr> <tr> <td>인도</td> <td>0.8</td> </tr> <tr> <td>미국</td> <td>0.35</td> </tr> <tr> <td>유럽연합</td> <td>2.5</td> </tr> <tr> <td>세계</td> <td>0.5</td> </tr> </tbody> </table>	국가	비중 (%)	덴마크	20	스페인	8	독일	6	네덜란드	2	인도	0.8	미국	0.35	유럽연합	2.5	세계	0.5	 <p>©태백관광홈페이지</p>
국가	비중 (%)																		
덴마크	20																		
스페인	8																		
독일	6																		
네덜란드	2																		
인도	0.8																		
미국	0.35																		
유럽연합	2.5																		
세계	0.5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풍력발전 #바람개비 #풍차</p>																			

⑪ 한국의 핀란드 (한국의 북유럽, 한국의 타이가)

핀란드 자작나무 숲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p>북유럽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산림이 가장 울창한 나라인 핀란드는 침엽수와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전체 국토의 3분의 2를 뒤덮고 있으며 오랜 세월 이 자작나무숲은 핀란드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자작나무를 거의 만병 통치약으로 사용합니다. 달인 물을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며 한증탕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핀란드에서 만든 '자이리톨'은 검은색으로 개발되어 현재 우리가 충치의 예방으로 많이도 씹고 있죠.</p>	<p>하얀 자작나무 숲과 설경의 조화가 아름다운 둘레길로, 태백시 외곽에 위치한 야외 둘레길이라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다. 순백의 자작나무들 사이로 피톤치드를 비롯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옛날 사냥꾼들이 이 골짜기 안쪽에서 멧돼지를 사냥해서 불에 돌을 달구어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 소리에서 유래하여 이곳을 지지리라 한다.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아 지지리를 자주 해먹던 골짜기라고 지지리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자작나무 #자작나무숲</p>	

⑫ 한국의 레지날드 망루

<p>아일랜드 워터포드 레지날드 망루</p>	<p>태백 경찰서 망루</p>
	
<p>레지날드 타워는 아일랜드 윈스터 워터포드에 있는 역사적인 타워입니다. 타워는 수세기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Waterford의 중요한 랜드마크이자 중세 도시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잔재입니다.</p>	<p>6.25전쟁 이전에 전국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망루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온전하게 남아 있는 곳은 이곳과 김천 부항 망루가 전부이다. 특히 태백경찰서 망루는 당시 안보의 위중한 상황과 역사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안보 문화 자산이다.</p>
<p>호주 카마이 보타니 해변 망루</p>	<p>태백 경찰서 망루</p>
	
<p>카마이 보타니 만 국립공원(Kamay Botany Bay National Park)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져있다. 이곳의 망루는 오스트레일리아에게 유산 가치가 있는 곳이다.</p>	<p>태백경찰서 망루는 1950년경에 경찰이 무장공비들을 관측 및 방어하기 위해 축성되었다. 6.25전쟁 이전 태백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자주 출몰하여 태백경찰은 공비들의 침투와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망루를 설치하였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방어시설 #역사유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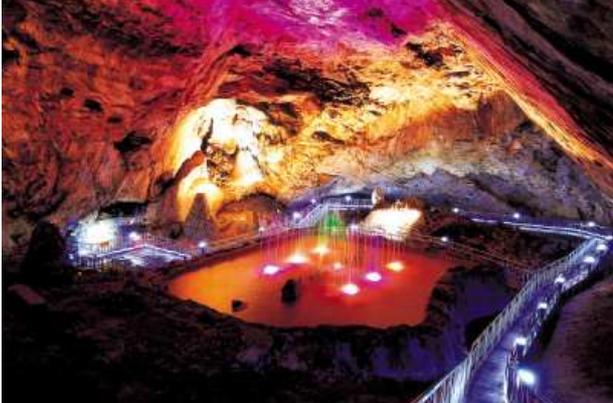
### 3)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여행

<코스예시> : 미국 동부 - 미국 서부 - 페루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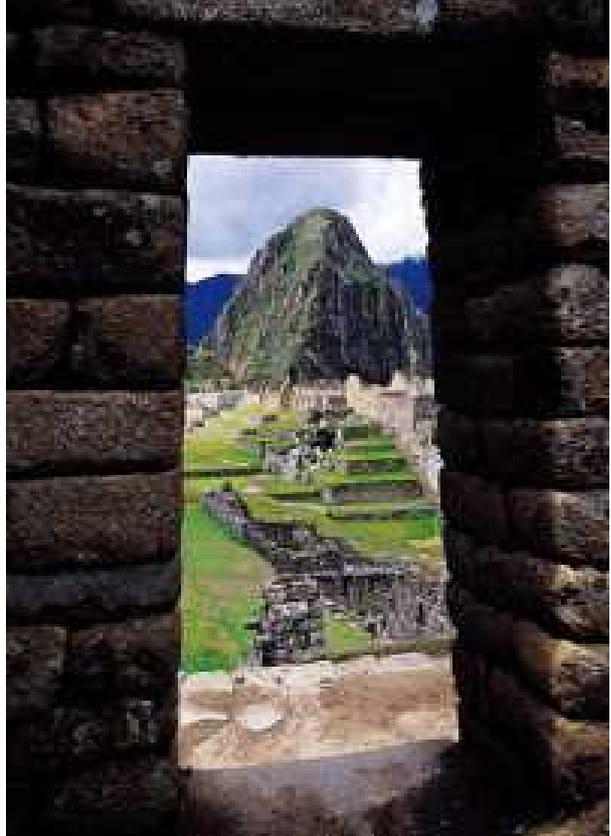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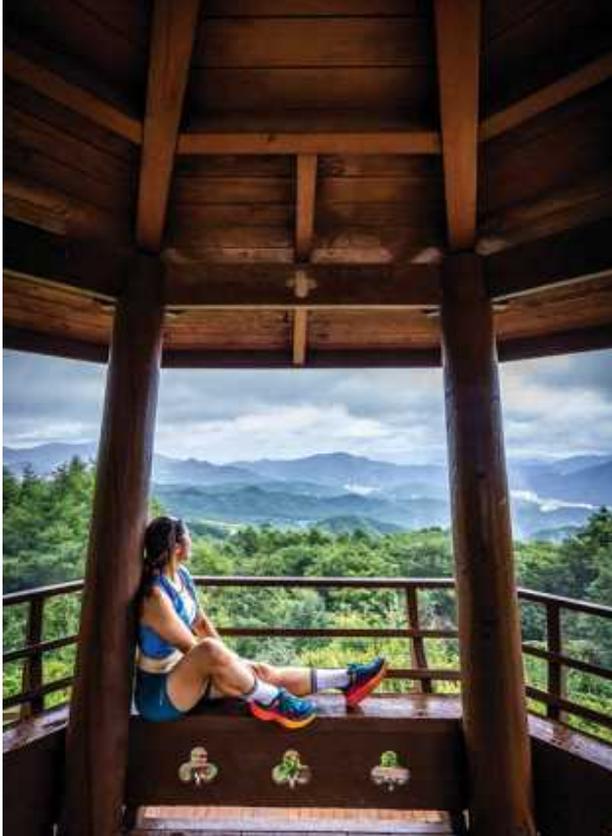
#### ① 한국의 뉴욕 베슬 (미 동부)

미국 뉴욕의 베슬 타워	오라라 파크 눈꽃 타워
	
<p>베슬(Vessel, TKA)은 뉴욕시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구조와 방문객 명소다.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한 이 정교한 벌집 모양의 구조물은 16층 높이로 계단 154개, 계단 2500개, 관람객들이 오를 수 있는 착륙지 80개로 구성돼 있다.</p>	<p>오로라파크는 폐쇄된 통리역과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만든 테마파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추진역을 모티브로 하여 세계 5개국(미국, 스위스, 호주, 일본, 중국)의 고원 역사를 캐릭터 하우스를 구성하였으며, 49.2m의 눈꽃전망대에서는 백두대간 아름다운 산세를 조망할 수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전망대 #랜드마크</p>	

② 한국의 칼즈배드 동굴 (미 서부)

미국의 칼즈배드 동굴	태백 용연동굴
	
<p>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은 뉴멕시코주 남동쪽 칼즈배드 도시 근방에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지하동굴이 있는 국립공원이다. 지리적으로 볼때 치와와 사막에 속하는 과다루페산맥 지대에 속한다. 공원의 동굴은 지하에 있는 석회암이 수천만년동안 지하수에 녹아 굴이 형성되었고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의 예술품이 만들어졌다. 이 지역에는 약 300개의 동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116개의 동굴이 공원 안에 있다. 가장 큰 동굴안의 공간은 빅 룸(Big Room)인데 길이는 1200m고 폭이 191m에 천정의 높이가 110m에 달한다.</p>	<p>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동굴, 용연동굴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용연동굴'이란 이름은 용의 연못 속에 있던 용이 계곡을 따라 하늘로 승천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연동굴은 백두대간의 중추인 금대봉 하부능선 해발 920m에 위치하고, 약 1억5천~3억만 년 전에 생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굴의 길이는 약 843m, 구조는 4개의 광장과 순환형 수평굴로 이루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역사와 규모로 사람들의 감탄을 저절로 자아내는 동굴이다. 다양한 동굴생물과 형성과정에서 생긴 생성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동굴조명 #석회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동굴</p>	

### ③ 한국의 마추픽추

마추픽추 전망대	오투(O2) 전망대
	
<p>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 유적.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다 '마추픽추'라는 말은 '높은 봉우리'라는 뜻으로 해발 약 2437m에 위치한 고산도시다.</p>	<p>태백시의 해발 1,500미터가 넘는 고지대인 함백산에 있다. 그 자락을 따라 내려가는 길레 고산도시 태백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오투 전망대가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태백시내의 풍경이 아름답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고원 전망대 #산소도시 #마운틴뷰</p>	

④ 한국의 카마이 보타니 망루

호주 카마이 보타니 해변 망루	태백 경찰서 망루
	
<p>카마이 보타니 만 국립공원(Kamay Botany Bay National Park)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져있다. 이곳의 망루는 오스트레일리아에게 유산 가치가 있는 곳이다.</p>	<p>태백경찰서 망루는 1950년경에 경찰이 무장공비들을 관측 및 방어하기 위해 축성되었다. 6.25전쟁 이전 태백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자주 출몰하여 태백경찰은 공비들의 침투와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망루를 설치하였다.</p>
<p>√ 장소 마케팅 포인트 : #방어시설 #역사유적</p>	

## 제4장 스탬프 투어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 제1절. 지역명소를 활용한 스탬프투어 활성화

#### 1. 스탬프투어의 개념과 효과<sup>3)</sup>

- 스탬프란 관광명소나 명승고적 또는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찍는 고무도장을 말한다. 이러한 고무도장을 지역여행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지역의 명소마다 도장을 배치하고 이러한 도장을 찍는 여행수첩이나 리플렛을 제공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스탬프투어라고 한다. 스탬프투어는 재미이론(Fun Theory)으로부터 출발한다. 목표의식부여, 재미와 흥미요소의 결합 등으로 인해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체험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 이처럼 스탬프나 여행수첩 같은 작은 장치들은 곧 그 지역의 단골손님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단골손님은 제대로만 대접하면 절대 발을 끊지 않는다. 스탬프투어를 마친 사람들에게 재방문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주거나 뜻 깊은 기념품을 증정하는 유도 장치가 마련되면 특히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더불어 기념품과 리플렛 여행수첩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역홍보마케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스탬프 찍는 곳, 스탬프투어 리플렛(예시)>



3) 나만 아는 그곳의 비밀, "스탬프투어가 마니아를 만든다" 머니투데이 2014.07.30

## 2. 스탬프투어와 농촌관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 5월 1일 '농촌여행 스탬프'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에서 엄선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수행한 관광객에게 스탬프를 발행하여 주고, 일정 개수 이상의 스탬프를 모은 관광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 출시 초반,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과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다소 고전했으나,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5개월만에 스탬프를 받은 방문객의 숫자가 2,000명을 넘어 섰다. 당초 기획 당시 스마트폰으로 스탬프를 모은다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아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앱 다운로드 개수만 30,000건 이상이고, 단체 방문객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의 이용객도 많아 순조로운 서비스 확산이 되고 있다.
- 이 서비스를 개발한 (주)뎃츠잇의 박승하 대표는 “포켓몬 고 (Pokemon GO) 게임 열풍에서 보듯, 이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이다”라며, “그래서 농촌여행스탬프에서도 지도를 통해 스탬프를 수집하는 장소(농촌체험마을)를 찾고, 그 장소에서 수집한 스탬프 개수를 다른 사용자와 랭킹을 통해 경쟁하는 소셜 게임적 요소가 있다”고 모바일 스탬프투어의 매력을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신의 농촌체험여행을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손쉽게 공유하는 'SNS 공유하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스탬프투어 앱을 업그레이드하여 내년도에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여행스탬프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iOS애플 앱스토어에서 “농촌여행스탬프”를 검색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여행 스탬프APP>



### 3. 스탬프투어를 통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 1) 스타벅스 스탬프 투어

○ 스타벅스는 스탬프투어로 유명한 커피메이커이다. 매년 스타벅스에서 발매하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는 스타벅스 마니아 중의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페이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에는 바로 서울부터 부산, 제주까지 전국 12곳의 스타벅스 지점이 지정되어 있는 스탬프 페이지이다. 다이어리에 지정되어있는 매장에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시면 매장의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오는 지정된 기한 이내에 12곳의 스탬프를 전부 모은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알록달록 전국 매장 스탬프와 특별 기념품들은 스타벅스 마니아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한다고 한다.

<스타벅스 다이어리와 스탬프투어 기념품>



#### ○ 스타벅스 스탬프 투어 정보

- 스탬프 날인 기간 : 2015.10.30-2016.10.31
- 스탬프 완성 확인 기간 : 2016.10.01-2016.10.31

○ 스타벅스 스탬프투어의 경우, 고작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념품을 받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 각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소개된 12곳의 매장들은 각각 전국의 주요 관광명소에 위치한 지점들이다. 아래 <표>는 2015년 다이어리 기준으로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전국매장과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관광명소 리스트이다.

○ 스타벅스 스탬프 날인 기간은 1년으로 1년 동안 천천히 국내 여행으로 추억도 쌓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매장을 전부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하여, 서울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한 스타벅스 파미에파크점에서 1회에 한하여 12곳의 매장 중 한 곳의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스타벅스 스탬프 매장과 주요관광명소>

구분	지점	주요관광명소	비고
1	강릉 안목항점	경포대와 정동진 일출	
2	서울 삼청동점	경복궁과 북촌 나들이	
3	서울 동부 이촌동점	국립중앙박물관	
4	제주 성산일출봉점	우도	
5	제주 송악산점	마라도	
6	진해 용원점	진해 생태공원과 군항제 (벚꽃)	
7	전주 전북도청점	한옥마을	
8	부산 송정비치점	송정 해수욕장	
9	부산 해운대 달맞이점	해운대 해수욕장	
10	문경 문경새재점	문경새재	
11	경주 경주보문호수 DT점	경주 엑스코 공원	
12	거제 대명리조트점	소매물도	

<스타벅스 문경새재점(좌), 스타벅스 경주보문호수점(우)>



2) 다같이 돌아 서울 한바퀴! 서울 둘레길 스탬프투어

- 서울둘레길 스탬프 투어는 하루에도 완주할 수 있는 코스이다.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생태 체험을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

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길이다. 기존의 서울시 '숲길', '마을길', '하천길'을 연결하여 새로 구성하여, 초급자용 코스인 안양천 코스부터 고급자용 수락·불암산 코스까지 총 8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스마다 3종류 정도의 스탬프를 찍으실 수 있다.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우체통을 재활용하여 스탬프 시설을 설치, 탐방객 스스로 스탬프를 찍으며 서울을 탐방하는 방식이다.

<서울 둘레길 스탬프 투어 정보>

<p>서울 둘레길 전체 코스 정보</p>	<p>서울 둘레길 전체 스탬프</p>
<p>서울 둘레길 스탬프 시설</p>	<p>스탬프 리플릿</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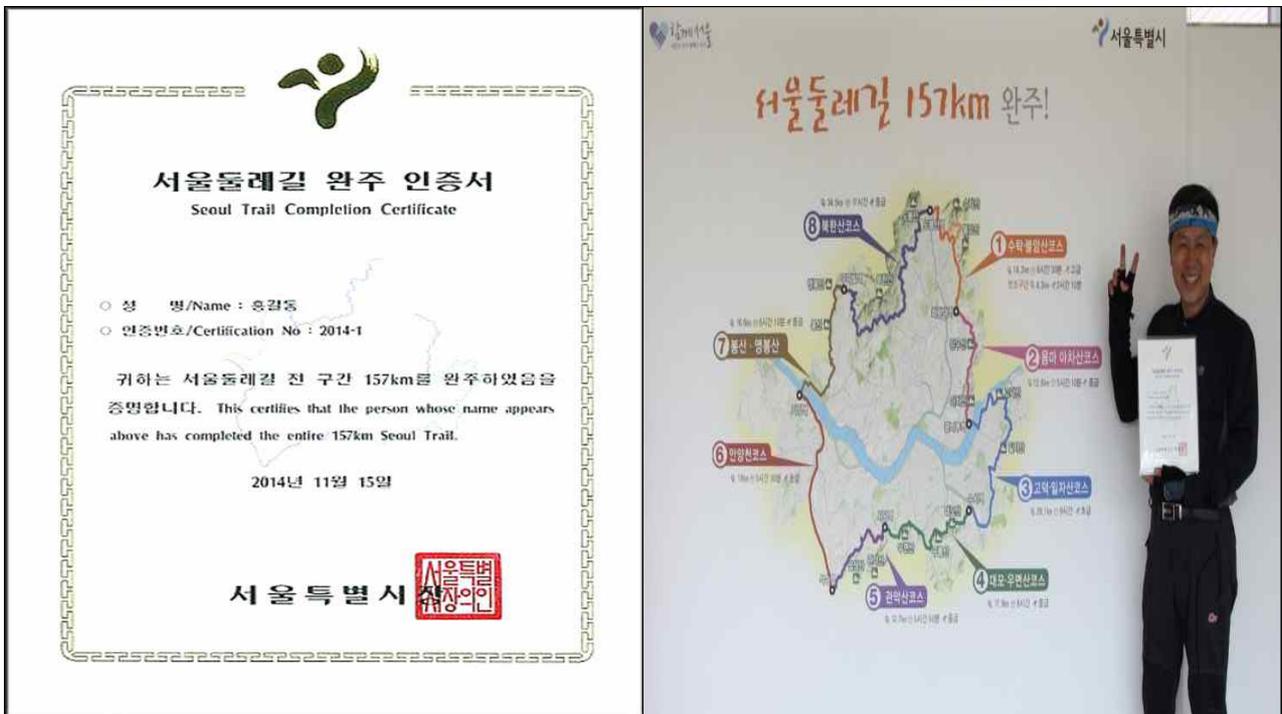
- 서울 둘레길 완주 인증서 배부처
  - 서울둘레길 안내센터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50m 앞)
  - ※ 배부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서울 둘레길 안내 지도 및 스탬프북 배부처

1.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4~5)
2. 서울창포원 관리사무소(02-954-0031)
3. 아차산관리사무소 (02-450-1655)
4. 양재시민의숲관리사무소 (02-575-3895)
5. 관악산관리사무소 (02-879-6561)

※ 배부시간 : 09:00-17:30

<서울 둘레길 스탬프 투어 완주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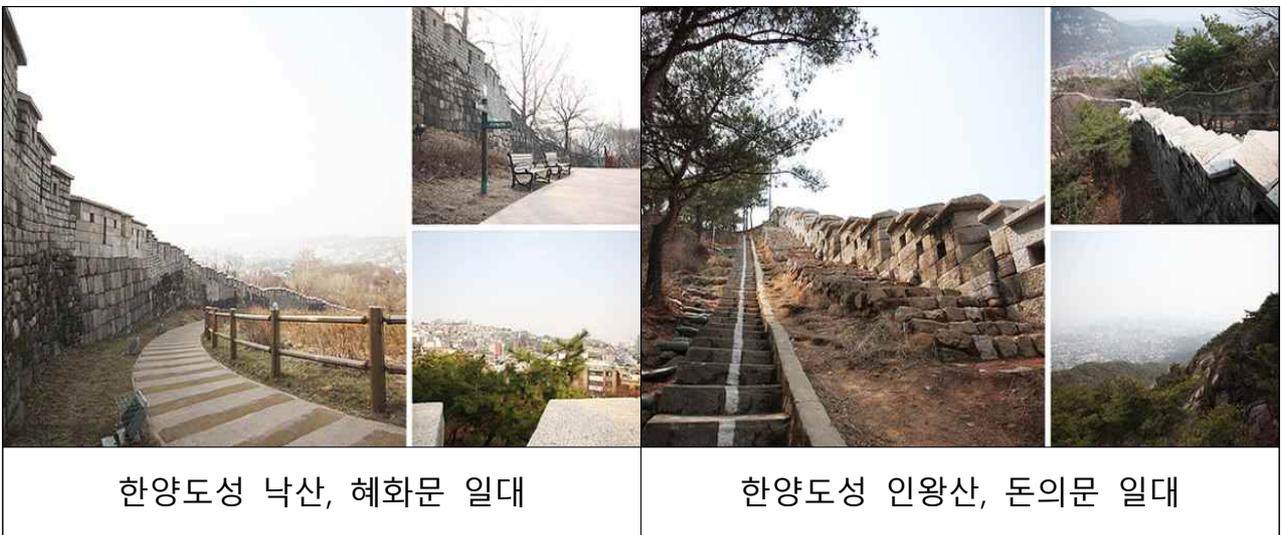
○ 서울 둘레길 스탬프 시설 위치

- 1코스 : 서울창포원 관리사무소 앞 / 불암산 우회코스 갈림길 / 화랑대역 4번 출구 앞 공원
- 2코스 : 화랑대역 4번 출구 앞 공원 / 용마산 깔딱고개 쉼터 / 아차산관리사무소 인근
- 3코스 : 광진교 초입 / 일자산초입 /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사무소 앞 / 탄천 끝부분
- 4코스 : 대모산 초입 / 양재시민의숲 안내소 옆 / 우면산 끝부분
- 5코스 : 관악산 입구화장실 앞(관음사 아래) / 관악산 안내소 앞 / 관악산 끝부분
- 6코스 : 석수역 앞 / 구일역 앞 / 황금내근린공원 화장실 앞
- 7코스 : 가양대교 시작점 / 증산체육공원 화장실 앞 / 앵봉산 끝부분
- 8코스 : 북한산둘레길 흰구름길 시작점 / 북한산둘레길 왕실묘역길 시작점 / 도봉탐방지원센터 앞 / 울둘레길과 북한산둘레길 합류점 / 북한산둘레길 옛성길 시작점 / 북한산둘레길 명상길 시작점

### 3) 뚜벅이 걸음으로 걷는 역사여행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 도성(都城)이란 한 나라의 도읍 외곽으로 쌓은 성을 말한다. <한양도성 스탬프투어>는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한양도성'을 따라 걸으며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다. '한양도성'은 4대문인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을 포함하여 조선의 도읍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으로, 국보 8개를 비롯한 총 178개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

#### <한양도성 일대>



-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는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18.6km의 도성 둘레를 걸으면서 유교의 4대 덕목인 인의예지를 비롯해 한양도성에 깃든 역사, 문화, 생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개 초소 중 한 곳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성곽지도를 수령한 뒤, 도성을 걸으며 초소마다 비치되어 있는 4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마지막 초소에서 완주기념 배지도 받을 수 있다.
- 성곽지도 한 장 들고서 자유롭게 떠나는 것도 좋지만, '1.21 사태 소나무'의 소나무는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각 왕의 시대에 따라 성곽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등 한양도성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걸으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전에 예약만 하면 무료해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한양도성을 걸으며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 칸씩 스탬프를 채워나가는 임무를 완수하다 보면 어느새 여행지의 명소들을 손 안의 추억으로 모두 간직할 수 있다.

<한양도성 코스와 성곽지도>



○ 서울한양도성 스탬프투어 초소 위치

1. 흥인지문 관리소(02-2149-4166) : 동대문역 6번출구 방향 정면 잔디밭 위 회색 가건물
2. 강북삼성병원 정문 보안실(02-2001-1112) : 강북삼성병원 정문 보안실 오른쪽 외벽
3. 승례문 앞 : 승례문 정문 오른쪽 5미터 지점(광장 개방시간 09:00~18:00)
4. 말바위 안내소(02-765-0297) : 개방시간 홈페이지 참고 <http://www.bukak.or.kr/>

<한양도성 스탬프 찍는 곳>



## 4.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활용한 스탬프투어 제안

### 1)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활용한 스탬프투어는 위에서 언급했던 지역명소 및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스탬프를 만들고 각 장소에 스탬프 찍는 곳을 설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스탬프 찍는 곳이 생겨나면 관광객들이 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장소에 방문할 동기가 만들어진다. 또한 각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유익미하게 인지하게 되므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 각 관광객들은 산책로를 모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라도 자신이 선택적으로 가고 싶은 곳만 장소만 방문하여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

<스탬프투어의 주요 지점 및 세계여행 코스 예시>

### 2) 대륙 구분을 통한 스탬프투어 포인트 추출

#### 태백에서 세계여행 - 아메리카-오세아니아코스



구분	지역의 자원	대표 속성	세계적 연계	세계적 장소
1	용연동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동굴	미국	칼즈배드 동굴
2	오투전망대	#고원 전망대 #산소도시 #마운틴뷰	페루	마추픽추
3	태백경찰서 망루	#방어시설 #역사유적	호주	카마이 보타니 망루
4	오로라파크	#전망대 #랜드마크	미국	뉴욕 베슬

# 태백에서 세계여행 - 유럽코스



구분	지역의 자원	대표 속성	세계적 연계	세계적 장소
1	바람의 언덕	#풍력발전 #바람개비 #풍차	덴마크	해상풍력발전단지
2	황지연못	#낙동강 발원지 #공원 #정원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정원
3	몽토랑 산양목장	#한국의 스위스 #한국의 알프스	스위스	그린델발트
4	쿨시네마	#고원 시네마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5	만항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도로	독일	뉴른부르크링
6	지리지골	#자작나무 #자작나무숲	핀란드	자작나무숲
7	장성이증교	#태백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스페인 프랑스	세고비아 수도교 가르주 가르교
8	장성수갱	#탄광 #수직갱도 #랜드마크	독일	즐페라인 샤프트12
9	태백경찰서 망루	#방어시설 #역사유적	아일랜드	윌터포드 레지널드
10	태백스피드웨이	#한국의 뉴른부르크링	독일	뉴른부르크링
11	철암까치발건물	#탄광역사촌 #건축사	프랑스	콜마르
12	철암역두선탄장	#근대산업문화재 #근대 산업사의 상징	독일	즐페라인
13	추추파크	#산악열차 #레일바이크	스위스	인터라켄 산악열차

## 태백에서 세계여행 - 아시아코스



구분	지역의 자원	대표 속성	세계적 연계	세계적 장소
1	해바라기축제	#해바라기밭	일본	아케노 해바라기축제
2	추전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	중국	티베트 탕구라역
3	태백산 눈축제	#순백의 설레임 #눈·얼음조각	일본	삿포르 눈축제
4	구문소	#동굴 #퇴적암 #석회암 #용	베트남	산동동굴
5	구문소	#동굴 #퇴적암 #석회암 #용	베트남	하롱베이 루언동굴
6	통리협곡 미인폭포	#한국의 그랜드캐니언 #에메랄드빛	라오스	루앙프라방 팡시폭포
7	발원지축제	#한강 #낙동강 #물축제	태국	송크란축제

## 2) 세부시행계획

### (1) 스탬프투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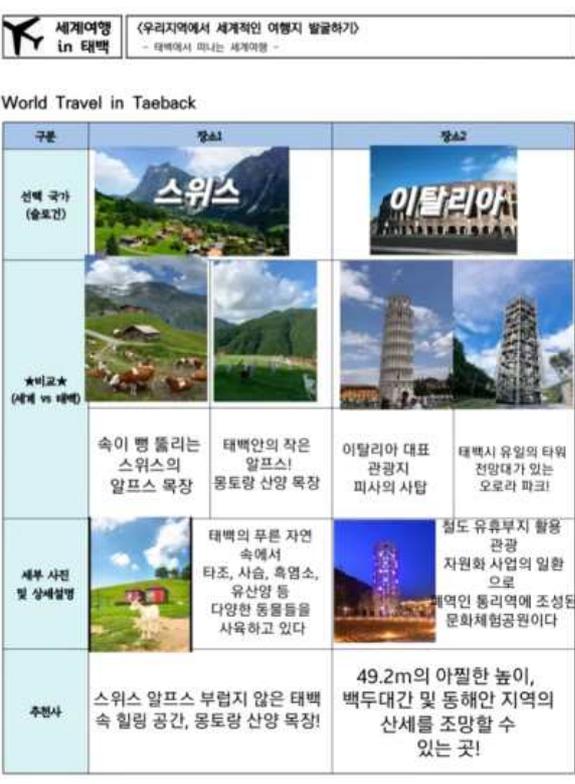
- ① 관광지에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 활동지를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우편발송 요청
- ② 추천 관광지를 방문, 스탬프 찍는 곳에서 스탬프 날인
- ③ 총 4개 스탬프 날인(스탬프 날인 중 1개는 인증샷 포함)  
- 인증샷은 얼굴과 관광지가 보이게 한 것.

- 홈페이지에 간단한 의견(관람후기 댓글)과 함께 올림
- ④ 활동지 뒷면에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기념품 신청

(2) 기념품 지급

- 태백시 특산물
- 태백시 캐릭터 상품(부채, 열쇠고리, 마그넷 등)
- 태백시 숙박권(지역 내 제휴업체)
- 태백시 체험할인권(탄탄파크, 오로라파크, 몽토랑 산양목장 등 제휴업체)

3) 태백에서 세계여행 관련 홍보자료 예시



**World Travel in Taeback**

구분	장소1	장소2
선택 국가 (슬로건)	<b>스위스</b>	<b>이탈리아</b>
★비교★ (세계 vs 태백)	 속이 뻥 뚫리는 스위스의 알프스 목장	 이탈리아 대표 관광지 피사의 사탑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태백의 푸른 자연 속에서 타조, 사슴, 흑염소, 유산양 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다	최도 유희부지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 통리역에 조성된 문화체험공원이다
추천사	49.2m의 아찔한 높이, 백두대간 및 동해안 지역의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곳!	



**World Travel in Taeback**

구분	장소1	장소2
선택 국가 (슬로건)	<b>프랑스</b> # 오네의 정원어 가다	<b>캐나다</b> # 이번 여름에도 해바라기 축제
★비교★ (세계 vs 태백)	 프랑스 오네의 정원 - 오네의 정원	 캐나다 - 다윈의 정원(캐나다)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프랑스의 정원, 오네의 정원은 귀족의 정원. 오네의 정원은 남부의 정원. 오네의 정원은 남부의 정원. 오네의 정원은 남부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은 캐나다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은 캐나다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은 캐나다의 정원.
추천사	프랑스에 있는 오네의 정원이 태백에 건 칠지연에서 클로드 오네의 정원 연극을 느껴 보자!	같은 여름에 느끼는 캐나다의 정원. 태백 해바라기 축제도 오세요~ 🌻



세계여행 in 태백 <우리지역에서 세계적인 여행지 발굴하기>

-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

World Travel in Taebak

구분	장소	장소
선택 국가 (슬로건)	스위스, 스위스인	영국, 영국인
★비교★ (세계 vs 태백)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추천사		



세계여행 in 태백 <우리지역에서 세계적인 여행지 발굴하기>

-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

World Travel in Taebak

구분	장소	장소
선택 국가 (슬로건)	베트남	스위스
★비교★ (세계 vs 태백)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추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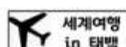


세계여행 in 태백 <우리지역에서 세계적인 여행지 발굴하기>

-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

World Travel in Taebak

구분	장소	장소
선택 국가 (슬로건)	네덜란드	베트남
★비교★ (세계 vs 태백)	네덜란드, 네덜란드인	베트남, 베트남인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추천사		



세계여행 in 태백 <우리지역에서 세계적인 여행지 발굴하기>

- 태백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

World Travel in Taebak

구분	장소	장소
선택 국가 (슬로건)	1. 일본	2. 네덜란드
★비교★ (세계 vs 태백)		
세부 사진 및 상세설명		
추천사		

## 참고문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계의 도시디자인」, 2010, 보성각
- 류수열.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 박복재, 우진경. 「매력 있는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도시브랜드마케팅」, 2011, 전남대학교출판부
-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 이종훈. 「해양관광의 새로운 추세 그리고 국내외 사례」, 2015, 충남발전연구원
- 이학주.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 춘천시 구곡폭포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서」, 2015,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월강변저류지 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연구」, 2013
- 최찬원. 「농어촌관광사업의 성공 요인 연구 : 농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2015,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권동희, 2013, 「동해 무릉계곡의 지형관광자원 분석과 평가」 한국지형학회지, 20(3), 65-77.
- 권혁재, 2010, 『지형학』 법문사.
- 김창환, 2011, 「강원도 DMZ 지리공원(Geopark)의 지오 사이트 선정과 스토리텔링」 한국사진지리학회 지, 21(1), 117-134.
- 전영권, 2009, 「지오투어리즘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문화 지형 발굴과 스토리텔링 구성: 만어사와 반야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07-117.
- 조형제(2004), 산업도시의 재구조화와 거버넌스, 국토연구 43권
- 이병민(2004),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권 4호
- 신동호(2017), 탄광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호주 울런공과 뉴캐슬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연구
- 강원개발연구원(1996),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 연구
- 강원개발연구원(1998), 폐광지역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 남상준(2002), 폐탄광지 폐석적치장 생태복원 녹화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근(1994), 태백 폐탄광 재활용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희 외(2013),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강윤식·강훈·정진훈(2019),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 정동원·진세준·한종호(2014),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비용: 강원도 삼척시를 중심으로
- 강유진(2016), 폐광지역 주민들의 지역 애착도가 관광 개발인식, 혜택,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장하(2010), 폐광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9권 2호
- 최규성·이승규(2006),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20권 2호
- 곽수정(2007),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 김미림(2009),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 석사논문
- 차주영·임강륜(201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